

東郊꿈나무 장학금 기탁 현황

(2002년 3월 15일 현재, 단위:원)

Table with 5 columns: 성명, 기금명칭, 횟수, 기탁금, 현재액.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onggyo Dream Tree Scholarship.

국민 한사람 한사람 정성모인 46억원

30여년人材키우기 밑거름

東郊꿈나무 장학금 이렇게 쓰입니다

지난해 9월 독도연구보존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 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재미동포 사업가 양삼영(梁三永·80)씨가 동아꿈나무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으로 개최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에서 검습사원으로 일했던 양씨는 2000년 3월 동아일보사를 찾아와 장학금 100만달러(당시 11억원 상당)를 기탁하며 "불우학생과 나환자 지원, 독도문제 연구사업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금을 운영하는 동아꿈나무재단은 양씨의 뜻에 따라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위원회에 매년 1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이 행사가 첫 번째 결실을 본 것이었다.

가난한 영재·장애학생 지원서

작년 독도 연구사업까지 결실

지난해 10월 동아일보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2001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89개교에서 정신지체와 시각 및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 590명이 참가해 컴퓨터 요리 재봉 등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뽐냈다.

이 대회는 부산에서 개막 의사로 활동했던 김도원(金道源·71)씨가 동아꿈나무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으로 개최됐다.

오씨는 77년 4월 동아일보사를 찾아와 35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으며 동아일보로 장기간 80주년인 2000년부터 신채재에 학생과 문예작가 진흥사업을 위해 써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는 "청각장애로 고생하다 두 달 전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 났(수인·壽仁)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당시 이 동욱(李東旭) 동아일보 사장의 눈시울을 붉게 했다.

오씨는 84년까지 7차례에 걸쳐 3억9700여만원의 기탁했고 현재는 이자가 쌓여 18억2400만원의 '큰 자산'이 됐다. 동아일보

사는 오씨의 뜻에 따라 2000년부터 장애학생 가능대회를 열고 '인산 문예창작칼로십'을 제정해 2000년 촉망받는 젊은 소설가 2명(조경란·김운호)에게 7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71년부터 동아꿈나무재단에 기탁된 224명 독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은 모두 16억1269만원과 100만달러, 현재 이자가 쌓여 46억여원과 107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접수된 기탁금은 모두 1억4031만원이다.

최초로 성금을 맡긴 독자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던 현안 오달곤(吳達坤)씨. 그는 71년 당시로서는 거액인 100만원을 내놓으며 "장간 100주년인 2020년부터 가난한 영재들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2000년 12월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80대 노인이 "낙 달 전 세상 을 떠난 아내의 생전 소망대로 소년소녀가 장을 돕는 데 써 달라"며 아내 명의로 5000만원을 맡겼다.

지난해 조성원(趙成源) 서울시립대 총무과장은 공무원 성과급으로 받은 200만원 원, 김상우(金相遇)씨는 부인 고희정씨와 결혼한 기념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성금을 낸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관악구 복지후원회장이 김운철(金潤哲·58)씨. 90년부터 117번에 걸쳐 2억여원을 기탁한 '단골 선혈자'다.

최준원(崔俊源) 동아꿈나무재단 이사는 "내년부터 기탁금은 세법에 따라 개인별 기금 증식을 하지 않고 재단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기탁자의 뜻을 받들어 사회사업과 장학 사업에 써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성금 재단기부재산 출연 내년부터 정관따라 사용

동아꿈나무재단은 독자들이 기탁한 성금 전액을 올해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해 내년부터 재단 정관에 따라 사회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31년간 적립된 기탁금을 기탁자의 뜻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했지만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증식 관리하는 것은 세법상 위법이라는 감독 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시점이 지정된 기탁금도 지정 연도까지 증식 관리하지 못하고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성금이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더라도 기탁자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성실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재미동포 사업가 양삼영씨 故이근영씨 유족 찾습니다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동아일보 검습사원으로 일했던 재미동포 사업가 양삼영씨가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던 고 이근영(李根榮)씨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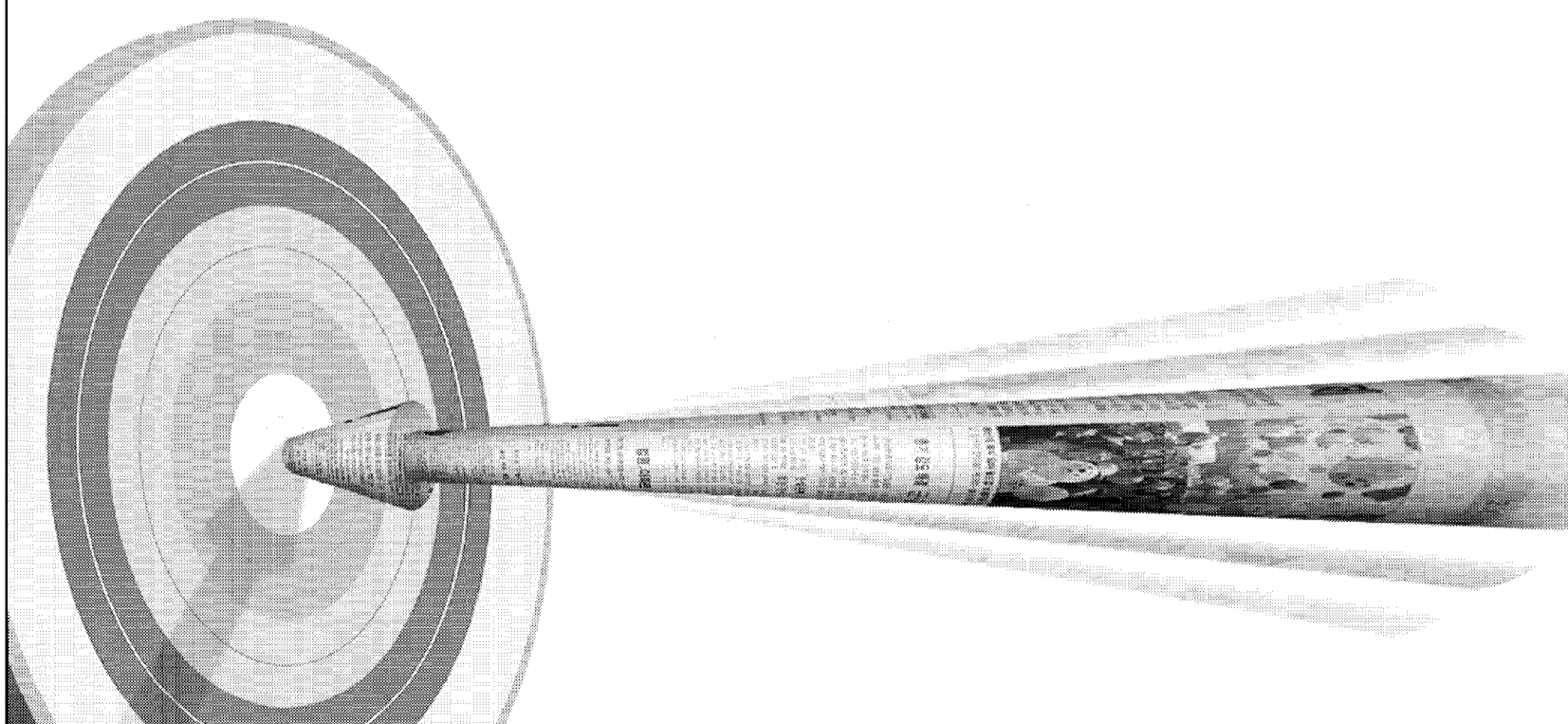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동아꿈나무 재단 사무국(02-361-1199)으로 연락 바랍니다.

Table with 5 columns: 성명, 기금명칭, 횟수, 기탁금, 현재액. Continuation of donor list.

Table with 5 columns: 성명, 기금명칭, 횟수, 기탁금, 현재액. Continuation of donor list.

Table with 5 columns: 성명, 기금명칭, 횟수, 기탁금, 현재액. Continuation of donor list.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광고 효과가 좋은 10가지 이유

- 1 신문은 90% 이상이 정기독자이므로 광고 주목률이 높습니다.
2 신문광고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신문독자는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 상품 구매력이 높습니다.
4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광고에 까지 연결됩니다.
5 신문광고는 설득력이 강해 기업이미지를 높여줍니다.
6 신문광고는 제작이 손쉬워 시장 대응력이 높습니다.
7 신문은 전국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 필요에 따라 매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구독자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많아 광고의 파급효과가 큼니다.
9 신문광고는 규격이 다양하므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 신문광고는 다양한 상품 아이টে를 한 광고에 담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좋다. 신문광고가 좋다.

마케팅 성공의 열쇠는 고객의 믿음입니다.
신문광고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에는 성공전략의 길이 있습니다.
마케팅 성공전략, 신문광고에서 찾으십시오.